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8월 16일**

완전한 터 히6:1-12

1. 완전한 터

1) 오늘 우리가 조금 난해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계시록13장의 짐승의 표 666에 대한 말씀과 함께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은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1-2절은 그 내용들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곳 곧 그리스도에게로 가자는 권면입니다. 3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4절부터 입니다. 4-5절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6절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구원을 받고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결단이 부족한 것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4) 요5:24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현재 완료형으로 설명하고 있고 롬9:10-13 사이에는 야곱과 에서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구원이 결정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21장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종의 자식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마엘과 여종을 쫓아내어라고 말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5) 이 사건을 갈4장에서 그대로 기록을 하였는데 이삭은 약속을 가졌고 이스마엘에게는 그 약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뜻이며 그렇다면 그 약속의 주인 하나님에게 구원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롬9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유 없은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6) 그래서 엡1:3-5 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이면 우리의 어떤 것과도 아무런 상관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7)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타락이라는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에 변화가 올 수 있는가.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이 새롭게 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것인가. 또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하였는데 너무 심하게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영입니다.

8) 하나님의 구원에는 본래 정도의 개념이 없습니다. 네가 잘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으면 구원입니다. 작은 죄는 되고 큰 죄는 안 되는 이런 논리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논리는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여전히 의문입니다.

9) 결국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의 결정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 되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와 같은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칙입니다.

10) 그러면 히브리서의 다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 저자가 왜 여기서는 이런 논리의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문입니다.

11-12을 보면 저자는 독자들을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본문 4-6을 보면 조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11)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언약을 깨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는 신학적 단어가 하나 있는데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등의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런 것들도 그들의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12)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저자가 자기의 생각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썼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분명히 표현한 단어가 없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반발을 하려는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다른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이 부분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본문으로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 이 은혜와 선택을 주신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2. 말씀 운동

1)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이 말씀을 받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고 항상 정복하고 누리고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2) 사55:1-3 에서 주님은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 할 것이라 하셨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딤후4:1-2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청난 배경을 두고 엄하게 명령하였는데 그 내용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 문제 해결의 답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일이 사역이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 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을 받고 따라 가면 됩니다.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4) 평생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인생을 정복했습니다. 요셉은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황제도 모르고 있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박사들이 다 모여도 모르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5)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고… 설명해도 이해 못하고 오히려 시간만 허비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고 결과로 보여 준 것입니다.

6)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답은 우리에게도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하여 말씀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작품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따라 실행에 옮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